

1719년 통신사행과 일본 문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申維翰의 贈日本人序文을 중심으로

이효원** · 하지영***

<차 례>

1. 서론
2. 申維翰과 일본 문사의 교류와 贈日本人序文
3. 贈日本人序文에 나타난 새로운 인식
4. 일본 시집의 유입, 『日本鳥山氏詩稿』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신유한이 일본 문사에게 증여한 서문을 바탕으로 그들과의 교류 양상과 일본 문단의 인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시기 일본 문단에서 통신사행단의 서문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수준을 공인받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속에서 신유한 역시 일본 문사들에게 많은 서문을 증여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鳥山芝軒(도리아마 시켄, 1655~1715), 入江若水(이리에 자쿠스이, 1671~1729), 木下蘭臯(기노시타 란코오, 1681~1752), 唐金梅所(가라카네 바이쇼, 1675~1738)의 문집의 서문이다. 신유한이 서문을 증여한 일본 문인들은 당대에 높은 詩名을 지녔을 뿐 아니라 현재 일본 문학사에서도 특기되는 인물들이다. 문장가이자 시인으로 자부했던 신유한은 이 시기 일본 문단에 등장한 전문 詩家라 할 수 있는 이들과 모종의 유대감을 느꼈고, 특히 古文辭, 唐詩 취향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

* 이 논문은 2017년 2월 7일 益善齋 심포지엄 “17~19세기 동아시아 삼국의 이성적 대화”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도움 말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박사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다. 나아가 일본의 문집을 조선에 유입하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였는데, 이는 동국대본 『日本鳥山氏詩稿』에서 그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다. 종적적·지리적 기준으로 華夷를 구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학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차원의 선입견과 편견이 문화적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신유한에게서 그러한 전면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조선후기 원증거를 거쳐 박제가·이덕무·정약용 등 실학자에게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유한, 해유록, 鳥山芝軒, 入江若水, 木下蘭阜, 唐金梅所, 日本鳥山氏詩稿, 古文辭, 서문, 통신사, 기해사행

1. 서론

시문 수창을 통한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확대되는 현상은 1682년 사행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문사들에게 통신사의 방문은 자신의 문학적 자질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 각지의 문사들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시와 문장을 가지고 통신사가 머무는 도시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통신사를 만나기를 고대하였다. 통신사와 시를 수창하거나 시집이나 문집에 서문을 받는 일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확인하고 나아가 문단에서 명성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正徳의 개혁을 이끈 정치가로 잘 알려진 新正白石(아라이 하쿠세키)의 경우를 보면 일본 문사에게 통신사가 써준 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白石은 1682년 통신사가 방문했을 당시 자신의 시집 『陶情詩集』을 서기 成琬과 제술관 洪世泰에게 보여주고 서문과 발문을 받았

다. 성완은 서문에서 白石이 이태백과 같은 재주를 지니고 있다고 극찬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白石은 서발문이 실린 자신의 시집을 가지고 당대의 유학자인 木下順庵(기노시타 준안)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¹⁾ 또 木下順庵의 소개로 훗날 德川幕府의 제6대 將軍이 되는 德川家宣의 侍講이 되었다. 이후 1711년 신묘사행 때 白石은 통신사를 만나기 전에 雨森芳洲를 통해 미리 『白石詩草』를 보내 正使와 副使, 從事官, 제술관 및 서기의 서문과 발문을 또 다시 받았다. 白石의 시집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으며, 조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719년 기해사행에 참여한 申維翰은 사행을 떠나기 전 崔昌大로부터 『白石詩草』를 받아 보고 사행 내내 白石와의 만남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白石은 德川吉宗의 즉위와 더불어 실각하여 은거 중이었기에 만날 수 없었다. 대신 신유한은 다른 빼어난 문사들을 만나 수창하거나 그들의 시문집에 서문을 써 주었다. 현재 확인되는 인물은 鳥山芝軒(도리아마 시켄, 1655~1715), 入江若水(이리에 야쿠스이, 1671~1729), 木下蘭臈(기노시타 란코오, 1681~1752), 唐金梅所(가라카네 바이쇼, 1675~1738)를 들 수 있다. 문인 외에도 의원 北尾春圃(기타오 슌포)의 의학서인 『精氣神論』에 대한 서문도 확인된다.

그동안 통신사 연구에 있어서 사행록, 필담 등이 중요한 자료로 거론되어 왔는데, 서문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각 기록들은 글을 쓰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독자가 다른 만큼 그 안에 담긴 일본에 대한 태도나 문체가 상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서문에 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통신사와 일본 지식인들 간의 문화 교류 현상이 보다 다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144쪽.

특히 신유한의 서문은 한일 문화 교류가 고조되던 시대적 분위기, 일본 문단의 발전, 또 조선 지식인의 변화된 일본관, 나아가 양국이 지향하는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기에 주목된다.²⁾ 이에 본고에서는 신유한이 교류한 일본 지식인, 그리고 이들에게 서문을 증여한 현장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반영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유한이 국내에 유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日本鳥山氏詩稿』의 유입 경위와 그의 의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2. 申維翰과 일본 문사의 교류와 贈日本人序文

주지하다시피 신유한의 『海游錄』은 여느 사행록에 비해 훨씬 풍부한 필치로 여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일본 문사와의 교류를 서술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특징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창과 필담을 통한 교류가 신유한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말해준다. 기해사행 때의 필담창화집을 대조해 검토해보면 신유한이 어떤 부류의 문사들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들에게 서문을 써 주게 된 계기와 전후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신유한이 서문을 증여한 일본 문인들은 당대에 높은 詩名을 지녔을 뿐 아니라 현재 일본 문학사에서도 특기되는 인물들이다. 통신사가 만난 일본 문사들이 대개 學塾을 열거나 의원, 또는 藩의 자문역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문학을 부수적으로 여긴 것에 비해, 신유한이 높이 평가한 문사들

2) 최근 노경희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고문사와 문인들과 통신사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던 양국의 고문사와 문학에 접점이 생겼다는 점을 주목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후기 한문학과 일본 고문사파(古文辭派) 문학 연구의 접점과 방향』, 『한문학 논집』 47, 근역한문학회, 2017.

은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이들이었다. 신유한 자신이 문장가이자 시인으로 자부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 시기 일본 문단에 등장한 전문 詩家라 할 수 있는 이들과 모종의 유대감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서문과 함께 『해유록』과 필담창화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유한이 서문을 써 준 문사들 및 그들과의 교류에 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鳥山芝軒(도리야마 시켄)

鳥山芝軒은 京都의 伏見(후시미) 출신으로 大阪에서 활동한 시인이자이다. 신유한이 일본을 방문한 1719년 당시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집만 전하고 있었다. 신유한은 9월 4일 大阪에 도착하여 여러 문사들을 만나 시를 수창하고 글을 지어주었다. 오사카에는 각지의 문사들이 모여 들어 통신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이들을 상대해야 했다. 신유한은 닭이 울도록 자지 못하고, 입에 넣은 음식을 다시 뱉어 내야 할 정도였다고 하며 급증한 시문 수창의 괴로움을 토로하였다.³⁾ 그러던 중 9월 9일 밤에 어느 객이 通事를 통해 『芝軒吟稿』 다섯 권을 보내왔다. 신유한은 바쁜 와중에도 바로 등불에 비춰가며 읽어보았다. 신유한은 평소 일본 문사의 시문에 대해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는데, 芝軒의 시만큼은 모두 精峭하여 운치가 있어 기이하다 생각했다. 시집을 보내온 객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사행 도중에 읽은 뒤에 서문을 지어 줄 것을 약속하였다.⁴⁾ 또 芝軒의 제자인 三木省吾(미키 세이고)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芝軒의 시가 천고의 보물과 같으니 조선에 가지고 돌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⁵⁾ 芝軒의 시를 몸

3) 『海游錄』, 9월 4일.

4) 『海游錄』, 9월 9일.

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19년에 간행된 東京大本 『芝軒吟稿』에는 신유한이 써준 『芝軒吟稿序』와 서문을 받는 과정에서 芝軒의 문인들과 신유한이 주고받은 편지가 附錄으로 수록되어 있어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현재 『芝軒吟稿』의 이본으로는 『芝軒略稿』(1713년 序文)와 享保4년(1719) 및 享保11년(1726) 간본이 전한다.⁶⁾ 東京大本의 刊記에 ‘享保己亥新刻’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이 신유한의 서문을 받아 1719년에 새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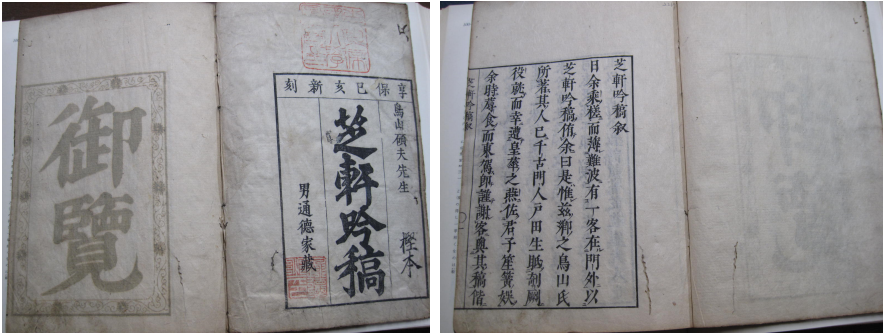
『지현음고』의 부록에 의하면 『지현음고』를 보내온 객은 芝軒의 문인인 三木省棼(미키 세이고)임을 알 수 있다. 省棼은 신유한에게 『지현음고』를 보내면서 “鷄林的 손님에게 보내어 묻나니, 香山居士의 시와 비교하면 어떤지”⁸⁾라고 하며 스승의 시를 白居易에 비견하였다. 이에 신유한은 바쁜 와중에 잠깐 들춰보았더니 “그 세련된 음조와 기발한 착상이 작품에 넘쳐나 편편마다 신선 세계의 노을처럼 보이니, 이야말로 천고에 이

5) “其雅調奇思，溢於藻刻，片片作閨苑煙霞，當是千年名貨，不可盡言之也。第念此行忽忽未及一二周觀。今當奉完而亦不忍割愛，敢私付囊中，若使諸君子有廣布此卷之意，因卑不佞以歸，三韓好事者當家誦而戶談，永爲美事，實所大幸。”(『謹呈三木氏梧下』, 『芝軒吟稿』附錄)

6) 『芝軒略稿』는 正德3년(1713)에 작성된 서문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享保4년(1719) 간본은 東京大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 鶯軒文庫,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京都大圖書館,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關西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享保11년(1726) 간본은 鶯軒文庫, 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불명의 이본이 大阪大學圖書館과 岩瀨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7) 刊記에 ‘南通德家藏’이라 되어 있어 芝軒의 아들인 鳥山香軒(도리아마 코오켄, 1687~1729)이 家藏하고 있었던 것을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래 ‘通德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東京大本 『芝軒吟稿』는 코오켄의 수택본이었던 듯하다. 코오켄의 이름은 輔門(스케카도) 자는 通德이다. 저서에 『香軒吟稿』, 『香軒略稿』가 있다.

8) 『芝軒吟稿』附錄, 『謹呈三木氏梧下』, “寄來爲問鷄林客, 孰若香山居士詩.”



〈東京大本 『芝軒吟稿』〉

름난 보물이라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⁹⁾라고 첫인상을 전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돌아가 三韓의 호사가들에게 집집마다 읽고 외워 길이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¹⁰⁾라고 하여, 조선에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날省품을 대신하여 戶田方彌(도다 호오히츠)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芝軒의 집안이 대대로 天皇家에 벼슬을 하였는데 芝軒은 약관의 나이에 벼슬을 그만두고 술과 풍류를 즐기며 오로지 시를 업으로 삼으며 ‘逃禪居士’라 자호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또 芝軒이 평소 지음이 없다고 탄식한 일을 거론하며, 시집을 간행함에 이르러 京都의 才子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우선 후세의 지음을 기다려왔다고 하며, 신유한이 芝軒의 시를 알아보고 조선에 전하고자 한 것에 대해 격세의 기이한 만남이자 異邦의 지음이라 하며 몹시 반겼다.¹¹⁾

9) 같은 곳 “其雅調奇思, 溢於藻刻, 片片作閨苑煙霞, 當是千年名貨, 不可盡言之也.”

10) 같은 곳 “若使諸君子有廣布此卷之意, 因卑不佞以歸, 三韓好事者當家誦而戶談, 永爲美事, 實所大幸.”

11) 『代三木氏奉復申先生牋下』, 같은 책. “弟等及刻其遺稿, 不能以缺序跋無遺憾, 顧都下才子, 豈無其文, 姑俟後世知音? 今也讀先生之書, 至于三韓諸君子當家誦

이후 10월 11일 신유한은 江戸에서 서문을 완성하여 편지와 함께 戶田方彌에게 보내고, 귀로에 오사카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서문의 내용은 후술하겠다. 신유한이 芝軒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써주었다는 소문이 교토의 천황가에도 들어가 마침내 太上皇¹²⁾이 『芝軒吟稿』를 열람하게 된다. 東京大本을 비롯한 1719년 간본에, 刊記 다음에 한 면 전체에 큰 글씨로 ‘御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芝軒의 제자인 田中琴山은 이를 기념하여 신유한에게 시를 한 수 지어 보냈다. 신유한은 대상황이 御覽한 소식에 몹시 기뻐하며 화답시를 지어 보내면서 “지금 그 시권이 행장에 있어 매일 맑은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니, 戶田生을 대면하여 이 마음을 전하여 쏟아 놓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¹³⁾라고 하였다.

장응두, 강백, 성몽량은 신유한이 받은 『芝軒吟稿』를 빌려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芝軒의 시가 담아하고 운치가 있다고 칭송하면서 雨森芳洲에게 부탁하여 훗날 부산을 통해 보내 달라고 하였다.¹⁴⁾ 신유한이 가지고 온 것 외에도 세 명의 서기를 통해 『지헌음고』가 조선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신유한이 오사카에서 수창한 문사들 가운데에는 芝軒의 제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入江若水(이리에 차쿠스이, 1671~1729), 難波如砥(난바 조도), 高井觀天(다카이 칸텐), 田中琴山(다나카 킨잔), 東鳳國子

而戶談永爲美事, 弟等以爲先生乃三韓之客, 老人是九原之人, 實隔世奇遇, 異邦知音也.”

12) 113대 天皇인 東山天皇(재위: 1687~1709)을 말한다.

13) 앞의 책, 附錄. “今其詩卷在囊裝中, 令人日日嗅清香, 恨未奉戶田生面瀉此懷. 卽承琴山子志喜之章, 踊躍勝事遂爲和呈.”

14) “芝軒詩集澹雅有致, 欲各得一件, 携歸故國. 此意傳于南溟若水二公如何? 若或惠贈, 送于釜山爲望”(『和韓唱和集』卷之上 10b)

(토오호 코쿠시), 北山青洲(기타야마 세이슈), 池田南溟(이케다 난메이), 宮崎仲卑(미야자키 나카히) 등이 모두 芝軒의 문인들이었다.

2) 入江若水(이리에 자쿠스이)

芝軒의 문인들 가운데 入江若水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若水의 이름은 兼通(카네미치), 자는 子徹,¹⁵⁾ 호는 若水(자쿠스이) 또는 櫛谷山人(이치다니산진)이다. 오사카에서 대대로 양조장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업을 이었다. 鳥山芝軒의 문하에 들어가 시를 배웠으며, 교토의 伊藤東涯(이토 도가이)의 문하에서도 수학하고 에도의 荻生徂徠와도 친교를 맺었다. 시로 이름을 떨쳤으며, 저서에 『西山樵唱集』, 『通俗兩國志』, 『東行吟』 등이 있다. 학과를 가리지 않고 당대의 학자들과 친교를 맺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그의 자유분방한 문인적 기질이 엿보인다. 徂徠와는 깊이 교류하며 徂徠가 저서를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徂徠學을 따르지는 않았던 듯하다.¹⁶⁾ 若水의 도움으로 徂徠는 1711년 통신사행단과 徂徠學派의 필담과 창화시를 모아 간행한 『問榘崎賞』을 간행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徂徠學派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¹⁷⁾ 若水와 徂徠의 각별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해유록』에는 오사카에서 만난 일본 문사들의 시가 대부분 치졸하였는데 若水와 南溟의 시가 불 만하다는 기록이 있다. 신유한은 9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이들을 만나 수창하였고, 11월 4일 귀로에 오사카에 들어서

15) 子徹: 일본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한자를 노출하여 표기했다. 이하 동일함.

16) 入江若水와 徂徠의 관계에 대해서는 日野龍夫, 『服部南郭傳攷』, 東京: ぺりかん社, 1999, 443~458쪽 참조.

17) 여기에 대해서는 이효원, 「18세기 徂徠學의 흥기와 通信使- 辛卯·己亥使行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을 참조.

다시 만났으며 이때 若水가 그의 시집 『西山樵唱集』¹⁸⁾에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신유한은 上關(가미노세키)에 머물 때인 11월 28일 경에 서문을 지어서 보냈다. 『江若水詩集小序』는 雨森芳洲의 소개로 若水の 시집 초고를 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若水가 자신이 이전에 서문을 써 줬던 芝軒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스승과 제자가 모두 훌륭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신유한의 서문은 荻生徂徠 등 일본 문사 3명의 서문과 함께 수록되어 1734년에 출판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대표적인 古文辭 문인 두 사람이 若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함께 나란히 서문을 엮게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若水는 신유한 외에도 장응두와 강백에게도 발문을 부탁하였다. 그 내용이 당시의 필담창화집인 和韓唱和集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이들 역시 芝軒을 거론하며 若水の 시가 스승 못지않다고 상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발문은 정작 若水の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 문사들이 통신사에게 서발문을 요구하며 그들의 글을 최대한 수집하되, 자신들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수록, 배열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²⁰⁾

18) 享保19년(1734) 간본이 日本國會圖書館,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早稻大學圖書館,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19)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曩吾維舟於浪華城, 有君子六七人胥歌鹿鳴之詩, 江若水藉甚. 既翌月而舟又西, 若水聞擘音而來, 以篋中艸托雨森氏曰: ‘惟茲杖杜短蔭, 幸得君子之遊, 庶幾封植嘉樹以無忘. 子爲我矢之.’ 後數日雨森氏果携江君詩, 躡柁樓, 具道君見屬狀. 余謹謝曰: ‘毋索我覆瓿, 爲此君之不朽必矣. 玄晏安能使左冲顯. 浪華之山川, 城郭草樹煙霞, 卽君肺腑中物, 所與逍遙遊者, 竝皆日東名勝, 吾固一把袂, 喚作黃庭仙也. 再展卷而知爲玄圃珍也. 若使余役斑管而雌黃, 曰某絃宮, 某絃商, 某聲徵羽, 獨不師瓊氏之寒笑, 而辱江君盛念已乎?’ 雨森氏作而言, ‘是嘗學詩於芝軒, 芝軒之稿已獲子序其首’, 余復躍然變色曰: ‘信厚信厚, 伯樂之廐, 無駑馬, 下和之櫝, 無礦石, 卽李娘劍舞而公孫可知矣.’ 己亥冬十一月晦, 朝鮮國, 宣務郎秘書官著作 靑泉申維翰書於上關舟中.”

20) 이는 이전 시대 白石의 시집 『백석시초』에서도 확인된다. 예술관 李暉의 서문이 정사인 趙泰億의 글보다 앞서 배치되어 있다.

3) 木下蘭臯(기노시타 란코)

蘭臯(란코)는 9월 16일과 귀로인 10월 25일에 尾張藩(오와리 번)의 숙소에서 신유한과 수창하고 필담을 나누었다. 신유한은 그의 시를 극찬하고 蘭臯의 요청에 따라 그의 시집인 『玉壺詩稿』에 서문을 써 주었다. 木下蘭臯의 이름은 實聞(사네히로), 初名은 希聲, 자는 達夫이다. 호는 蘭臯 또는 玉壺真人(곶코신진)이다. 岡島冠山(오카지마 칸잔, 1674~1728)에게서 중국어를, 荻生徂徠에게 유학을 배운 뒤 오와리 번에 출사하였다. 1719년 통신사를 만나 중국어와 시문에 능하다는 평을 받은 뒤 일본 전역에 이름이 알려졌다. 저서에 『大江蘭臯先生詩集』, 『玉壺詩稿』, 『壺中放吟』, 『吳下舊聞』, 『蘭臯遺文』 등이 있다.

10월 25일 필담 자리에서 蘭臯는 신유한에게 스승인 荻生徂徠에 대해 “일찍이 古文辭의 학문에 힘써 周公과 孔子의 책이 아니면 보지 않았고, 左氏·司馬遷·班固·揚雄의 책이 아니면 꺼내 보지 않았으며, 『離騷』·『文選』·李白·杜甫의 시가 아니면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대개 明나라 李夢陽과 그 공을 나란히 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 또 徂徠의 문학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

문장의 도는 達意와 修辭 두 유파가 있습니다. 둘 다 성인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 실은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아니면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三代 때는 두 가지가 나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東漢 때에는 수사에 치우쳐 達意를 주장하는 일파는 잠잠하였고, 六朝 시대에 浮靡하여 唐나라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韓愈와 柳宗元이 달의로 떨어져 우주를 일신하였습니다. 歐陽脩와 蘇軾에 이르러 수사는 또 쇠퇴하였다가, 원나라와 명나라 때 다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李攀龍과 王世貞이 나와 오로지 수사로 떨어져 한결같이古를 가지고 준칙을 삼았으니 가히

대호걸이라 하겠습니까.²¹⁾

진한고문에 대한 호호를 숨기지 않고 말하고, 이반룡과 왕세정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평생 진한고문을 전범으로 삼았던 신유한이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유한은 徂徠가 달의와 수사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몹시 명쾌하다고 하며 조선의 문풍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는 오로지 송·원의 문장을 따랐는데, 우리 왕조에 이르러 여러 才子들이 일어나 혹자는 “반고와 사마천”이라 하고 혹자는 “한유와 유종원과 소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體의 근원을 궁구하면 유학의 도리를 중지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장의 체재는 대체로 송나라의 氣習을 따라, 간혹 한두 구절 험함[險]과 순함[順], 평이함과 난삽함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명나라 諸子 중 李夢陽, 何景明, 王世貞, 李攀龍은 진실로 대가들이라 그들의 문장이 처음 전해졌을 때 또한 이를 尊崇하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왕세정과 이반룡의 문장을 전적으로 공부하는 이는 열에 한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장하는 선비들은 대체로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팔대가를 많이 읽어야 한다. 내 문장이 법도에 익숙해져 평탄해진 이후에, 명나라의 여러 대가를 또한 때때로 열람하여 그 문체를 돕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할 뿐입니다.²²⁾

21) 『客館瑣集』 後篇, 10a~10b. “文章之道, 達意修辭二派, 發自聖言, 其實二者相須, 非修辭則意不得達, 故三代時二派未嘗分別也. 東京偏修辭而達意一派寥寥, 六朝浮靡, 至唐而極矣. 故韓柳而達意振之, 宇宙一新, 至歐蘇又衰降, 迨元明再極矣. 時有出李于鱗王元美者焉. 專以修辭振之一, 以古爲則, 可謂大豪傑矣.”

22) 같은 곳. “我國高麗之世, 專當宋元, 至我朝而群才亦起, 或曰班馬, 或曰韓柳蘇, 而原其體, 則以儒道爲宗. 故其文體裁率緣宋習, 間有一二章句險順平濫之殊而已. 皇明諸子中李何王李, 允爲大方家, 其文之始來傳也, 亦不無向風之思, 而其專攻王李之文者, 十無一二. 卽今我國中操觚之士, 大都言曰, 宜先多讀八大家,

신유한과 蘭臯가 古文辭를 애호한다는 점에서 소동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일본 문사의 시문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蘭臯와 같이 중국어에 능숙하고 고문사를 추종하는 문사들에 대해서는 그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문학을 매개로 교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신유한은 지나친 표절이나 모의는 경계했는데, 이 필담에서도 蘭臯가 고문사에 대한 경사를 보이자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송고문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蘭臯에게 써준 『玉壺詩藁敘』에서 신유한은 젊은 시절 고문사를 배우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먼저 토로하였다. 그리고 사행을 와서 蘭臯가 보낸 『仙人篇』이라는 제목의 장편 7언시를 얻어 읽고 그의 빼어난 재주를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신유한은 직접 蘭臯를 만나, 그가 중국어로 말하고 중국음으로 책을 읽고 있음을 보고는 그가 분명하게 중국인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혹 그가 徐福이 일본에 숨겨놓은 서적을 본 것이 아니냐는 신유한의 질문에 蘭臯는 평소 옛 사람의 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답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²³⁾

吾文既熟，谿逕平坦然後，皇明諸子，亦可時時披閱，以佐其采如此云云矣。”

- 23) 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玉壺詩藁敘』, 『玉壺詩藁』. “余少也好爲詩，詩好古人語，學漢不似，學六朝不至，學唐又不逮，既操觚數十年，去古人猶燕郢，方且罔乎假乎，自厓而反。反而問於大荒之東。其民聲曲風謠，既漢六朝唐人，不啻若風馬牛，最後得蘭臯木君所賦儂人篇，而絕異之，謂是千古耶。吾未敢妄信以爲當今，當今不宜有也。亡何而與木君邂逅於張州之館。御盃酒結襟帶，共一昔風流會，君顏瘦而神清，睫間有煙霞氣。其言用華語，其讀書用華音，其志嚶嚶然慕華人。發其篋而見玉壺稿一部，近體駸駸學到嘉隆際古調歌，又欲摩建安之壘，譬之操琴者，志高山而聲峨峨，志流水而聲洋洋，卽絃強指澁，有一二未叶於宮商，要不是淫哇怠慢，窈窕佳治，世俗之樂也。余既目荒而心醉，忽不知簷星嚮天曙，搵君手語而曰：‘異哉，斯爲詩乎！夫自列國之世，邈鄙衛，未能作齊唐，齊唐未能作曹邈，

4) 唐金梅所(가라카네 바이쇼)

唐金梅所의 이름은 興隆(코오류우), 자는 孟喜, 梅所(바이쇼)는 그 호이다. 和泉(이즈미: 지금의 大阪府 和泉市) 출신의 商人으로 해운업과 미곡 도매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文人과 학자를 후원하였으며 그 자신도 시에 뛰어났다고 한다. 당대의 유명한 시인 祈園南海(기온 난카이, 1676~1751)와 교유하였으며, 문집을 보면 徂徠學派와 교류한 정황도 보인다. 거처하는 집을 垂裕堂이라 명명하고 瀟湘八景을 모방하여 垂裕堂八景을 명명하고 스스로 八景에 관한 詩를 지었으며, 당대의 명사들에게 시와 記文을 구하였다. 통신사에게도 자신의 시를 보여주고 記文을 청하였다. 당시의 필담창화집인 『附韓人文』²⁴⁾에는 이때 받은 시와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저서에 『梅所詩稿』와 『垂裕堂家訓』이 있으며, 1711년 통신사와 증답한 시문이 『鷄林唱和集』에 수록되어 있다.

梅所는 기해통신사가 오사카에 머물렀던 9월 4일에서 9일 사이에 雨森芳洲를 통해 자신의 시집을 보내서 통신사에게 비평을 해줄 것을 청하

土俗使然也。今君奈何從瀛海之外，接千古中華風，漂然遐舉，欲步武於作者之林哉。抑吾聞秦之時，使徐福入海求不死藥，因以家日東，日東之熊野山蓋有徐生冢，天下謂福之去，在燔書之前，凡代繩以來，奇文秘籍，逸而不傳者，咸集於是邦，得無君之雙眼，獨透人間靈寶藏乎？僕願與聞焉。’ 君笑曰：‘子何以齊東之語而調不佞，不佞生平癖於古，古人逝矣，其書即迹也。踐迹而行不爽跬步，斯其爲古人，獨吾所恐者，未得摩訶訶，而又失國能，芒芒焉，壽陵之笑端已。子幸爲我敘是卷而指南之。’ 余蹶然起謝曰：‘余之紕於藝者也，見北海而無秋水，顧何撰而塞君之意？嘗論陟崑崙者，整筴于崑之趾，不至其顛，未害爲崑崙也。君之詩殆穆滿之馭乎，異日而登玄圃倚閭風，與觀於王母之室則可矣。彼其道幽遠而多艱，慎無謂車輪薄馬玄黃也。’ 是爲敘。歲己亥嘉平下澣，朝鮮國宣務郎祕書官著作，充通信製述官，寧海，申維翰，書於對州客館。”

24) 『附韓人文』은 芳洲文庫에 零本으로 전하는데, 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에 소장된 『梅所詩稿』의 일부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堀川貴司, 『唐金梅所と李東郭』, 『季刊日本思想史』 49, ペリカン社, 1996를 참조할 것.

였다. 호오슈우는 梅所가 豪商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淡泊하고 簡素한 데 뜻을 둔 豪傑之士라 소개하였고, 신유한은 梅所의 시집을 읽은 후 불만한 작품이 많아 걸출한 사람인 듯한데 만나보지 못했다며 아쉬워하였다.²⁵⁾

신유한은 梅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문장이 千古를 넘나든다며 극찬하는 한편, 자신은 말은 직책 때문에 일본에 와서 셀 수 없이 많은 시를 지어야 했지만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자조하며 보내준 시에 일일이 화답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편지의 말미에 『鼓琴歌一闕, 奉垂裕堂主人』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지어 함께 보내 梅所의 기대에 응하고자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매소시고』에는 徂徠學派로 분류되는 大潮元皓(다이초오 겐코오, 1676~1768)의 평점 비평이 보이는데 그 내용 가운데 신유한 등 통신사가 『매소시고』에 비평한 것을 다시 비평한 것이 보인다. 신유한을 비롯하여 姜栢, 成夢良, 鄭后僑는 각각 『매소시고』에 서문을 써 주었고, 아울러 비평도 한 것으로 보인다. 朝日 문사가 주고받은 시문에 직접 비평을 가한 경우는 이것이 최초라 여겨진다. ²⁶⁾ 이 시기에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의 문헌이 유입되었고 상업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

25) 『海遊錄』 11월 4일. “且以其私草一卷, 托雨森東致之, 欲得余批點, 見其中, 多有可觀, 以爲錚錚佼佼之類, 而恨不能相見.”

26) 이밖에도 北尾春圃(기타오 슌포)가 지은 한방의학서인 『精氣神論』에 대한 서문이 京都大圖書館에 필사본으로 전한다. 卷尾의 부록에는 醫員으로 사행에 참여하였던 小心軒 金光泗의 『題春圃命門辨說後』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 기타오 슌포와 그의 아들 北尾道仙(기타오 도센)의 발문이 붙어 있다. 기타오 슌포는 春竹(순치쿠)·春倫(순린)·道仙(도센)·春乙(순오쓰)·春達(순다쓰) 등 다섯 아들과 함께 大垣(오가키)에서 제술관 신유한, 서기 姜栢·成夢良·張應斗 등 조선 문사와 만나 교류하였고, 이때 신유한이 『정기신론』 서문을 지어주었다. 신유한의 『海遊錄』 『聞見雜錄』에 “北尾春圃는 호를 當壯庵이라 하였는데, 저술한 『정기신론』이 포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서문을 지어 주었다”(北尾春圃, 號當壯庵, 所著『精氣神論』數卷書, 似有工程, 余爲之序)라고 하였다.

어졌다. 이러한 물질 토대 위에 유학과 한문을 교양으로 삼는 풍조가 일어났다. 일본식 한문 독법인 훈독을 비판하고 중국어를 익혀 시문을 창작할 것을 주장한 徂徠學派의 등장도 일본 문사의 시문 창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신사의 시문을 무조건 존송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배경 하에서 신유한은 일본 문사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서문을 써 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의례적인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대 일본의 문학 수준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교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書唐金氏詩卷』에서 신유한은 조선에서 『백석시초』를 보고 白石을 만나기를 고대하였으나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차에 唐金生의 시집을 얻어 보았다고 서술하였다. 이어 그의 시를 보고는 唐金氏의 스승이 과연 白石이었음을 더욱 확신하고, 그가 일본 문단의 맹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였다.²⁷⁾

27) 전문은 다음과 같다. 『書唐金氏詩卷』, 『附韓人文』. “壬辰春, 平泉趙侍郎, 自夫桑坡使歸, 以白石詩草一編行于世, 不佞嘗從藝圃, 得而誦之, 謂是婉朗團圓, 已露唐人面目, 而格韻之過者, 時髣髴濟南家. 夫桑去中華萬里外, 廓然有中華之風者, 必其人襟帶間貯得一種神仙氣, 卽如象罔之珠, 而帝江之舞, 皆不是人間物已. 又拊卷而唏曰, 鷄林之距日域, 但阻一帆風, 日中奈何得斯人. 己亥秋, 余遂應佐介之命, 隨節而東, 及到馬州, 與雨森氏伯陽傾蓋, 而談風騷, 伯陽於白石素有管邨之驩, 語娓娓不置. 且曰, 夫夫病謝事家居, 君今至東都, 恨亡以相見. 余旣俛然改色曰, 譬之三神山, 近輒風引去, 奈吾緣薄何? 伯陽曰: ‘君之慕白石深矣, 白石之所稱, 有奇士唐金生, 治文章, 好哦詩, 今取其一卷草來, 可以侑君笑未.’ 余驚謝, 趣出而陳之, 得近體若干, 就其精華爽籟, 往往有奇思, 卽如‘淨界隔雲金刹冷, 高林礙日石樓寒. 寒汀獨坐蘆花暮, 明月相思桂樹秋. 敗荷聲亂雨過渚, 叢桂香濃風滿樓. 問花墜地恨春鳥, 澹月帶寒聽曉雞’等語, 出其上調, 以當古作者, 可作長慶已下諸君子風調, 種種神趣, 色色天香, 鋪則煙霞, 秀則琅玕, 藉令凌雲臺材木, 或時有輕重之偏者, 要之不失爲千金構也. 吾於是益信, 唐金氏之瓣香, 果在於白石, 而敢問秦青之曲, 尚有餘憾也否耶. 昔李獻吉爲詞林千古倡, 亡何而七子作矣. 說

다음 장에서는 신유한이 이들 문사들에게 써 준 서문을 통해 이러한 점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3. 신유한 贈日本人序文의 특징과 그 의미

이제 신유한 서문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이상 살펴본 일본 문인들은 신유한의 서문을 엮어 자신들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당시만 해도 白石의 성공신화가 여전히 유효하던 때였다. 신유한의 서문을 통해 천왕의 열람을 도모한 도리아마 芝軒에게서도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1719년은 徂徠學派를 중심으로 조선 문인의 문학적 수준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하기 이전이었기에²⁸⁾ 통신사행단의 서문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수준을 공인 받고자 하는 분위기가 기해사행 때 절정을 이루었으리라 생각한다.

신유한 역시 이들의 열의에 부응한 탓인지, 이전 시기 통신사와는 다른 인식을 드러낸다. 그의 서문에서는 일본 시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한층 깊어져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역시 『해유록』에서 일본 시인의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일본 시인의 시는 밥을 먹다가 뽀를 정도이며, 표절에 능하며 詩作의 방법조차 잘 모른다고 조소를 보내곤 했다.²⁹⁾ 오늘날 일본 문학사를 장식하는 시인에게조차 그 평가

者謂，陽阿之瑟，北地更張之，歷下鼓之，琅邪玉振之，更爲我謝白石公，公今髮已短矣。伯陽棲棲薄祿海嶠外，唐金生尙幸健無恙，日新未已，狎齊壇而歌代興者，有是卷在。”

28) 이효원, 「1719년 필담창화집 『航海唱酬』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관 -水足屏山과 荻生徂徠의 대비적 시선에 착안하여-」, 『고전문학연구』 41, 2012; 구지현, 「1763년 필담창화를 통해 본 조선과 일본의 시문창화 인식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참조.

가 인색했다. 松浦霞沼(마츠우라 카쇼오)와 雨森芳洲(아메노모리 호슈)의 시에 대해서는 孤澹하고 진부한 한계를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충고하였다.

하지만 서문에서 그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해유록』에서 약간 운치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하였던 入江若水の 시에 대해서, 그의 문집인 『江若水詩集』 서문에서는 “현포의 보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서문에서도 이러한 극찬이 일관되어, 시인의 명성을 선양하려는 목적을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 전고의 나열로 화려하게 수사된 그의 글은 그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원래 서문은 지극히 의례적인 글쓰기가 아닌가. 전대 서문과 비교할 때 그의 ‘의례적인 수사’는 몇 가지 변화된 지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芝軒吟稿序』를 살펴보자.

하루는 내가 사행선을 타고 難波(난바: 오사카를 말함-인용자)에 도착하였는데, 한 객이 문밖에서 『芝軒吟稿』를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이 고을의 鳥山氏가 저술한 것인데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문인 戶田方彌(토다 호오히츠)가 판각을 맡아 일을 마쳤는데 다행히 사신 행차를 만나 군자가 시를 읊는 즐거움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때 새벽밥을 먹고 동쪽으로 가야하였기에 곧 객에게 삼가 감사를 드리고, 그 원고를 가져가 수레 먼지 사이에서 다 읽어보았다.

내가 한번 볼 적에는 영지버섯의 색을 맛볼 수 있었고, 하루 동안 읊조림에 옥소리를 얻었고, 한 달 동안 음미하고는 생강과 계피 맛을 구분하게 되었다. 실로 언덕의 향기가 아름다운데 당세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내가 매우 기이하게 여겨, 돌아가 우리 동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에도에 이르자 ‘戶田生이 천 리 거리에서 『芝軒吟稿』를 불후하게 해달라는 청으로 편지를

29) 『海游錄』 10월 3일 ; 『附聞見雜錄』

보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편지를 다 읽고는 더욱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평생 시에 벽이 있어, 약관의 나이로 천종의 녹을 초개처럼 여겨, 날마다 안개 낀 마을, 水竹, 술 마시는 사람 중에서 시를 읊고 시가 지극하면 白酒를 마시곤 했다. 스스로 逃禪居士라고 자호하였는데, 삶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한 것은 오로지 이 물건뿐이었다.

내가 이에 책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기를, 그 연원이 아름답구나. 시가 감하는 것은 天機인데, 기에는 얇고 깊음이 있어 입에 발하는 것이 혹 다를 수 있다. 당에서 송에 이르기까지 시인들이 바둑알처럼 늘어서 있으나 각각 宗이 되고 族이 되고 祖가 되지만, 큰 요체는 소리가 근거하는 것이 없으면 헛되고, 화려한 것이 없으면 거짓되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 덩달아 좋아하면 그 말이 과장된다.

鳥山씨가 지은 시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스승삼아[師心] 수단을 버리고 하나도 고인의 면목을 쓴 것이 없고 하나도 今人의 意態를 쓴 것이 없다. 이 때문에 밖으로는 象에 죽하고 안으로는 思에 죽하다. 이 때문에 영지의 색이 되고, 이 때문에 낭간의 향이 되고, 이 때문에 생강의 맛이 된다. 곧 그로 하여금 흥겹게 읊조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북면하여서 한두 소년과 교유하여 도시 인사들에게 명성을 파는 것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안타깝도다. 아름다운 난초 골짜기에서 죽으니, 꿀베고 나무하는 자들이 모욕하여 마발을 모아 능멸하네. 쭉대와 상수리 나무가 요행이 한번 높은 집의 그늘에 의탁하니 귀한 자와 교유하려는 재화가 날로 이르러 하늘을 찌르는 영웅의 시호를 얻게 된다. 내가 이 때문에 조산씨를 위해 슬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능양의 구슬은 천년이 넘도록 손상되지 않아, 한번 척안이 눈을 씻고 보는 것을 만나게 되면, 곧 아침저녁 사이에 징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집에 달려있다. 생각건대 내가 물을 건너 노를 저어 가서 한번 이 문집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니 또한 우연일 뿐이다. 지현음고 서를 짓노라.

세차 기해년 10월에 조선국 선무랑 비서관 저작 통신제술관에 충원된 신유한은 서하노라.³⁰⁾

芝軒의 시를 접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시의 정조와 시인의 삶, 지향하는 바를 두루 서술하면서 아낌없이 그를 찬양하고 있는 글이다. 신유한은 대상 문인에 집중하면서 온갖 형용을 동원하여 그를 선양하였다. 시집에 대한 서문으로서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인용문이 ‘일본 문사’에 대한 서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라는 배경이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오로지 시인芝軒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전 시기 新井白石의 시집에 붙여진 서발문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만국의 동쪽에 자리한 나라가 우리 조선인데, 우리 조선의 동쪽에 또 일본이 있다. 그 나라는 실로 치우쳐 멀리 있다. 중국의 국토와 이어져 있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중화의 문명을 사모하고 시경의 끊어진 절주를 힘써 따르는 것은, 높은 재주와 원대한 식견이 특별하여 범상치 않은 자가 아니라

- 30) 『芝軒吟稿序』, 『芝軒吟稿』. “日余乘槎而薄難波, 有一客在門外以『芝軒吟稿』侑余曰: ‘是惟茲鄉之鳥山氏所著. 其人已千古, 門人戶田生, 眡劓鬪役就, 而幸遭皇華之燕, 佐君子笙簧娛.’ 余時蓐食而東駕, 卽謹謝客, 與其稿偕, 卒業車塵間. 夫余一寓目而嘗芝菌之色, 既日颯而得琅玕之響, 月咀嚼而辨薑桂之味. 信菀菀乎中丘之馥而不見采於當世者. 余故甚奇之, 欲以歸告我同志. 及在江都, 忽報戶田生走其書千里以芝軒不朽請, 讀書訖, 益審夫人也. 生平癖於詩, 弱冠而芥千鍾, 日哦詩烟村水竹酒人中, 詩至沃以白, 自呼逃禪居士, 所與終其天者, 唯此物. 余乃俯卷而唏曰, 美哉淵乎! 詩之所感天機也, 機有淺深而發於口者或殊, 自唐泊宋作者棋列, 各有宗有族有祖, 大要聲不根則浮, 華不實則賸, 適人之適者, 其辭夸. 乃鳥山氏之爲詩, 則必用師心而舍津筏, 不作一古人面目, 又不作一今人意態, 所以外足於象, 而內足於思. 繇是而爲芝菌之色, 繇是而爲琅玕之響, 繇是而爲薑桂之味, 卽令婆娑漫淫, 白首窮途. 不肯北面而交一少年賣名聲于都人士者, 皆是之爲也. 嗟夫! 猗蘭之死於谷, 而蕘牧者侮罵, 集馬勃而陵之, 蕭蒿柞櫟, 幸一托蔭於華構, 而貴遊之貨日以至, 得謚干霄之雄, 吾所爲鳥山氏悲者. 然陵陽之璧, 越千年而亡恙, 遇一隻眼洗了, 便若朝暮所可徵者, 有斯集在. 顧不佞, 乘流而至, 擊棹而往, 獲一挂名於卷中, 亦自偶然耳, 作芝軒吟稿序. 龍集己亥月旅應鐘 朝鮮國宣務郎 秘書館著作 充通信製述官 申維翰敘.”

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내가 對馬島에 들어갔을 때 木下順庵(기노시타 준안)의 문하에 뛰어난 문학사가 많은데, 白石源公이 더욱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실로 이미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하루는 비로소 그의 詩藁 1권을 얻어 반복하여 읽어보았는데, 그의 학문이 넓고 그의 재주가 풍부하여, 마치 많은 것을 가진 장사꾼이 보물을 꺼낼수록 더욱 기이한 것과 같았다. 南金과 東箭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궁벽한 바다 떨어진 나라에 이러한 작자의 풍모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일찍이 논하기를 그의 시는 화려하면서도 탁월하고, 격조가 높으면서도 취향이 우아하며, 호건하면서도 거칠고 뽕뽕한 데로 빠지지 않으며, 아름다우면서도 간드러지는 데 빠지지 않아, 점차 성당의 구기를 갖추게 되었다. 바로 사람에게서 천기가 발하여, 땅이 편벽되고, 태어난 것이 늦다고 해서 국한되는 바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나라가 문학을 숭상하는 교화가 이에 성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옛날 庾信이 다른 나라에 명을 받들고 갔을 때 온자승의 적막한 비석하나를 얻고 함께 말할만하다고 하였으니, 지금 내가 공을 만난 것은 자산에 비하면 사치스럽지 않은가.³¹⁾

1711년 사행의 正使 趙泰億의 서문은 철저한 중화관에 입각해 있다. 일본은 치우친 지역에 자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중화문명이 미치지 어

31) 趙泰億, 『白石詩集序』, 『謙齋集卷之四』 권41. “國於萬國之東者爲我鮮, 而我鮮之東, 又有日域焉. 其國誠僻而遠矣, 與中國壤地不相接. 語言不相通, 若其心慕乎華夏之文明, 力追乎風騷之絕響, 非有高才遠識特達而不羣者, 烏可能哉. 自余入馬州來, 聞順庵木公門下, 彬彬多文學士, 而白石源公, 尤有名焉. 固已傾嚮之矣, 日始得其詩藁一卷, 反覆吟繹, 其學也博, 其才也富, 如多藏之賈, 其出愈奇, 使南金東箭, 不得獨擅其美, 不道窮海絕國, 乃見此作者之風也. 窃嘗論之, 其詩華絢而實茂, 格高而趣雅, 豪健而不流於麤硬, 婉麗而不泥於纖巧, 駸駸有盛唐人口氣, 乃知天機之發於人者, 不以地之偏生之晚而有所局之也. 觀其詩, 卽其人可想, 而亦以見其國崇文之化於斯爲盛也. (…)
昔庾子山奉使異國, 得溫子昇寂寥一碑. 而謂可與共語, 則今余之得乎公者, 視子山不已奢乎.”

렵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白石의 시는 중화 문명을 사모하여 힘껏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이것은 일본의 崇文의 교화가 성대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논하였다. 일견 일본 문사의 詩才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이역이라는 공간적 간극, 중화문물과의 문명적 간극을 전제에 둔 부분적인 인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한 庾信의 전고는 상대국인 일본을 야만으로 얽잡아 보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梁나라 유신이 北方에 갔을 적에 濫子昇이 지은 韓陵山寺碑을 보고 돌아와, “북방의 문사들이 어떠하던가?” 라는 남방 문사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오직 한릉산의 한 조각 비석만 더불어 말할 만하고, 나머지는 나귀가 울고 개가 짖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일견 상대를 높게 평가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제술관과 正使라는 신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조태억과 함께 파견되었던 제술관 李磻은 신유한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사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일본의 국토의 빼어남이 白石의 시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논한 다음, “세상에서 내외로 사람을 논하고, 고급으로 시를 평하는 자는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달론이 아니다. 땅으로 논하자면 밖이 안에 미칠 수 없으나,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또한 밖이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실로 옛날에 미칠 수 없으나 후대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 또한 옛날이다. 어찌 안이 귀하고 밖이 천하며 古가 영화롭고 오늘이 비루하다 하겠는가. 더구나 충만하고 순수한 기운이 내외와 고급에 따라 후하고 박한 것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³²⁾라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사인 조태억의 글 앞에 그의 서문이

32) 李磻, 『白石詩集序』, 『白石詩草』. “世之論人以內外, 評詩以古今者, 皆落於一邊非達論也. 以地則外固不及於內, 而以外視內則內亦外也. 以世則今固不逮於古,

놓인 것은 이러한 후한 평가 덕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현에게도 일본인인 白石이 왜 시를 잘하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당위가 있었다.

반면 신유한에게 오면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자각하지 않았다. 그의 서문은 오로지 시인 芝軒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의 특출함과 불우함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天機와 師心 등 평소 신유한이 가졌던 문학에 대한 지론을 전개하면서 芝軒의 성취를 더욱 높였다. 이는 芝軒의 시에 깊이 공감하고, 그에게 신유한 자신의 처지 및 문학과 삶의 지향을 투영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공간과 문화의 거리는 애초에 논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³³⁾

또 신유한의 서문은 의례적인 수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唐金生の 시집을 가져다 펼쳐서 근체시 약간 편을 읽어보았다. 그 정수가 맑고 상쾌한 데 에 이르러서는 왕왕 기이한 시상이 있었다. 예컨대 “조출한 경계에 구름이 가로막혔는데 금빛 사찰 서늘하고 / 높은 숲에 햇빛이 어렸으니 돌 누각 차갑네 // 서늘한 물가 홀로 앉으니 갈대꽃 저물고 / 밝은 달빛에 그리워하니 계수나무 가을이로다 // 이운 연꽃에 소리도 어지럽게 비가 물가 지나며 / 계수나무 줄기에 향기 짙어 바람이 누대에 가득하다 // 간혹 꽃이 떨어져 봄새가 한탄하는데 / 맑은 달 차가운데 새벽 닭 울음 듣노라” 등과 같은 구절은 몹시 빼어나서 옛 작자에 비할 정도이니 長慶 연간(821~824) 이하의 여러 군자의 풍조를 지을 만하다. 곳곳에 신령한 의취와 향기가 서려서 펼쳐 놓으면 안개와 같고 빼어난 것으로는 옥과 같으니, 가령 凌

而以後視今則今亦古也。何內之貴而外之賤也，古之榮而今之陋也。況網緼精粹之氣，不以內外古今而有豐畜。”

33) 『玉壺詩稿敘』와 『敘唐金氏詩卷』에서는 일본 및 지역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만, 이 역시 단편적인 언급에 불과하여, 장황하게 지역과 문재의 관계에 대해 논증한 이현의 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雲臺의 材木이 혹은 때로 경중이 다른 것이 있으며 요컨대 천금의 작품이 되는 것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³⁴⁾

신유한은 梅所의 시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그의 수준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이전 시기 조태억과 이현, 任守幹 모두 피상적인 언급으로 白石의 문학적 경지를 평가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유한이 실제로 梅所의 작품에 시평을 진행했던 것이 梅所의 문집 안에서도 확인된다. 신유한의 평어는 남겨지지 않으나 大潮元皓(다이초오 켄코오, 1676~1768)가 통신사의 비평을 읽고 다시 평어를 붙인 것이 있어 주목된다. 『哭篤所北君』라는 시에 가한 평어에서 大潮는 신유한이 말하기를, ‘이 頸聯은 바로 于鱗의 말이다’라고 했으니, 韓人이 안목이 있다³⁵⁾라고 하여, 신유한의 평어를 인용하며 다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또 『樓居』라는 시에서는, “청천이 말하기를, ‘시 전체가 우아하여 티끌 하나 섞이지 않았으니, 唐이니 明이니 논할 것이 없이 신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좋은 평이라 생각된다”³⁶⁾라고 하였다.³⁷⁾

이러한 신유한의 글쓰기 방식은, 일본 문단의 변화와 신유한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17세기 말에는 伊藤仁齋가 古義學을 제창하여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18세기 초에는 徂徠가 고문사학을 제창하고

34) 『書唐金氏詩卷』, “趣出而陳之, 得近體若干, 就其精華爽籟, 往往有奇思, 卽如‘淨界隔雲金刹冷, 高林礙日石樓寒. 寒汀獨坐蘆花暮, 明月相思桂樹秋. 敗荷聲亂雨過渚, 叢桂香濃風滿樓. 問花墜地恨春鳥, 澹月帶寒聽曉雞’等語, 出其上軀, 以當古作者, 可作長慶已下諸君子風調, 種種神趣, 色色天香, 鋪則煙霞, 秀則琅玕, 藉令凌雲臺材木, 或時有輕重之偏者, 要之不失爲千金構也.”

35) 『梅所詩集』, 卷上 7b~8a. “申維翰云, 此頸聯的是于鱗語, 韓人有眼.”

36) 『梅所詩集』, 卷上 16a. “靑泉曰: ‘通篇台雅, 不雜一塵, 卽無論爲唐爲明, 自是神仙中人.’ 算得是好評.”

37) 박희병 외, 『通信使의 筆談』(1) (서울대출판부 간행예정) 참조.

자신의 문학론을 개진한 저술을 출판하던 때였다.³⁸⁾ 또 수준 높은 전문적인 한시 작가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若水, 芝軒, 梅所 모두 藩에 소속되지도 않고 학문적 성향도 두드러지지 않은, 시에 전념한 문인이었다.³⁹⁾ 사행을 가기 전 최창대를 통해 新井白石에 대한 정보를 접했던 신유한은 이미 일본 문단의 수준이 오랑개로 폄하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신유한에게는 華夷의 논리로 이들의 문학을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극찬으로 일관한 신유한의 서문은 의례적 수사가 강하지만, 실제로 일본 문인의 문학적 수준이 이미 전대와는 다른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문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대는 신유한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그가 서문을 써준 인물은 대개 고문사와 唐詩 취향을 지닌 자들이다. 蘭臯는 荻生徂徠의 제자이며, 若水 역시 徂徠와 친분을 맺은 인물이다. 梅所는 新井白石의 제자 이면서도 고문사에 경도된 인물로 추정된다. 芝軒은 당시를 강설하는 것을 전업으로 한 문인이다.

『玉壺詩藁』의 서두에서 신유한은 자신이 어릴 적에 고문사를 배웠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토로한 다음, 蘭臯의 시는 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극찬하였다. 이는 중국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그의 학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書唐金氏詩卷』에서는 梅所가 白石의 제자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明代의 전후칠자의 무리라고 평하였다. 또

38) 이효원, 「18세기 徂徠學의 흥기와 通信使-辛卯·己亥使行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

39) 구지현, 「18세기 필담창화집의 양상과 교류 담당층의 변화」, 『조선통신사연구』 9, 2009.

梅所에게 보낸 통신사의 서신을 살펴보면, 일본 문사에 대한 신유한의 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신유한은 “천고를 넘는다”고 梅所의 시에 대해서 극찬을 한 반면, 姜栢은 그에게 고문사를 닮는 데 너무 힘쓰지 말고 자득할 것을 은근히 충고하면서 견해의 차이를 드러냈다.⁴⁰⁾

이러한 점에서 신유한은 역대 통신사 중에서도, 일본 문사들과 가장 깊이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한 문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유한은 바로, 조선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빈번하게 전후칠자에 경도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일본 문단에서는 고문사학과가 큰 영향력을 가질 때였다. 일본 문사들이 그를 조선의 이반룡이라고 칭하며 기렸던 것에서도⁴¹⁾ 문학에 대한 상호 공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⁴²⁾

신유한 서문에 보이는 독특한 문체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그의 서문은 자구를 불규칙하게 운용하고 천고를 다량 사용하여, 명대 전후칠자의 문풍을 연상하게 한다. “卽令婆娑漫淫, 白首窮途, 不肯北面而交一二年賣名聲于都人士者, 皆是之爲也.”(『芝軒吟稿序』)에서처럼 王世貞의 글을 인용한 것도 확인된다.⁴³⁾ 이러한 문체는 그의 『해유록』과 비교할 때 확연히 차이를 지닌다. 물론 사행록은 타국의 상황을 보

40) 『附韓人文』; 박희명 외, 『通信使의 筆談』(1) (서울대출판부 간행예정)

41) 『承政院日記』, 英祖 27년 2월 2일. “啓禧曰: 日本人, 至今盛稱其文章, 以爲有白雪樓氣味, 對製述書記, 則輒問申學士平安否, 其見重於外夷如此矣.”

42)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행 연구에서 신유한이 소중화주의에 매몰되어 일본 문사를 혹평했다는 견해(藍弘岳, 『徂徠學派文士と朝鮮通信使-‘古文辭學’의展開をめぐって』, 『日本漢文學研究』第9號, 二松學舍大學 東アジア學術總合研究所, 2014)는 일면만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한이 자기대로의 문학적 기준을 가지고 일본 문사들을 정당하게 평가하려 했으며, 古文辭를 통해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43) 왕세정의 『俞仲蔚集序』에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諸少年 婆娑漫淫 白首途遠 豈其能遂重洛陽紙 而以是數哉然.”

고한다는 목적을 가졌기에 문체 또한 사실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평이한 형태를 띠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문과 비교할 때에도 신유한의 서문은 유독 난이도가 높으며 진한고문적 특성이 드러난다. 주변 문인의 비판에 자신의 문체를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던 그였지만, 일본 문사와 문학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자신의 문학적 기교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⁴⁴⁾

44)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신유한이 서문에서 이들 여러 문사들의 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문학적 공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海游錄』과 같은 기록에서 보듯, 문장에 있어서는 古文辭에의 지나친 경사를 경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신유한은 일본 문사 가운데 자구의 모의와 표절에 빠져 문리가 통하지 않는 문장을 짓는 이를 만나서는 이반룡과 왕세정에 죄를 짓는 격이라 비판하였다(『海游錄』 8월 18일조). 또 고문사를 추중하는 일본 문사는 많으나 명나라 문장을 제대로 배운 이는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海游錄』 「見聞雜錄」 「文學」). 신유한은 평생 고문사를 애호하였고 주변에서도 전후칠자에 경도되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지나친 惑溺을 경계하였고, 그 대안으로 당송고문을 병행 학습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행에서 돌아와 편찬한 『三家狐白評』의 서문에서 그는 젊은 시절 진한고문에 빠졌던 것을 팔을 부러뜨린 것에 비유하며 그 치료약으로 蘇軾, 歐陽脩, 王安石의 글을 제시하였다. 신유한은 일본 문사와 더불어 비평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사행 도중 만난 일본 문사 가운데 모의와 표절에 빠져 문리가 통하지 않는 문장을 짓는 이가 많은 것에 대한 경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효원, 『「해유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 인식』, 서울대박사논문, 2015 참조). 즉, 徂徠學派의 문사들이 宋學과 宋文을 극렬하게 배척했고, 모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신유한은 당송고문의 장점을 취하고 모의보다는 자득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유한의 서문은 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을 상찬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실제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가 “鳥山씨가 지은 시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스승삼아 수단을 버리고 하나도 고인의 면목을 쓴 것이 없고 하나도 今人の 意態를 쓴 것이 없다”라고 하며, 일본 문인들 중에서도 芝軒에 대해 유독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시집을 국내로 유입하려는 뜻을 적극 피력한 것에는, 芝軒의 문학이 자신의 지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荻生徂徠와 비교할 때 신유한이 자득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하지영, 「고문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 - 申維翰과 荻生徂徠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1, 2016을 참조).

4. 일본 시집의 유입, 『日本鳥山氏詩稿』

신유한의 공감과 이해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가 일본의 문집을 가지고 조선에 돌아가고 싶다고 거듭 발언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靑泉生이 일어나 책을 펴서 다 읽고는 선박 안에서 손뼉을 치고 탄식하기를, “영해에 신선굴이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구나. 다시 진월인[扁鵲]의 장생의 비결을 보았도다. 신농씨가 백초를 맛본 이후로 세상에 의술을 말하는 자들이 무리지어 일어나서 논의가 새로워졌다. 상의는 하늘과 함께 명을 기르고 족의는 사람으로 명을 억제한다. 최하는 형체에 복무한다. 내가 말하는 천이란 군의 정기신의 논의이다. 하늘은 사람을 정으로 내리고, 사람에게 기를 주고, 사람을 신으로 쓴다. 잘못이 없고 어긋나지 않으면, 나의 천화를 잘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병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 군의 말을 따라 무탈할 자가 어찌 일본 사람뿐이겠는가. 내가 장차 이 책을 가지고 大雅의 입에 보급하여 천하로 하여금 군의 이름을 외고 군을 생각하게 하면, 천하의 병을 치료하려는 자가 모두 편안한 안색을 찾을 것이니, 내가 감히 서문 쓰는 것을 즐기지 않겠는가.⁴⁵⁾

신유한은 위의 서문에서 의원의 길을 선택한 春圃의 삶을 소개하면서, 의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치를 부각시켰다. 문집에 대한 서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華와 夷, 文과 醫의 구분을 떠나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

45) 『精氣神論敘』, 『精氣神論』. “靑泉生起開卷卒業, 柁樓間擊朗而唏曰: “不圖瀛海神仙窟. 復都秦越人長生訣矣. 自炎皇飲百草以來世之言醫者群起, 而新其喙. 上醫與天養命 族醫以人制命 最下役於形 夫吾所謂天 卽君精氣神之論也. 天降人以精, 賦人以氣, 用人以神, 不愆不乖, 善養吾天和. 如是則, 病安從生. (...) 從君說而保亡恙者, 豈惟日東人? 吾將以是書普及於大雅之口, 使天下誦君而服君, 以治天下之病者, 悉泐泐康色, 余敢不樂爲之序.”

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저술인 『정기신론』을 조선에 가지고 돌아가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인용한 『芝軒吟稿序』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내가 매우 기이하게 여겨, 돌아가 우리 동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며 조선에 『지헌음고』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는데, 이는 『해유록』과 芝軒 제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반복된다.⁴⁶⁾

신유한이 이들 서적을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정기신론』의 경우에는 아직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지헌음고』는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동국대본 『日本烏山氏詩稿』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일본 문집 필사본이라는 점 이외에도 흥미로운 지점이 몇몇 있다. 본장에서는 이 책의 서지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논해 보도록 하겠다.

이 책은 필사본 不分卷 1冊으로 총44張이다. (크기 24.1 x 15.3 cm) 제목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烏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아마도 필사자가 芝軒의 성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한다. 표지 뒷면에는 “西子湖頭唱竹枝 不堪往事繫人思 波濤白晝錢王弩”라는 시구가 전서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流球國의 程寵父란 시인의 시구인데, 『해유록』에도 실려 있다. 이를 볼 때 필사자는 신유한의 『해유록』을 함께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면에는 『閨情 九首』라는 제목의 7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고, 제목 하단에 “此詩王嬌眷戀申生情 乃有此作載 見艷異篇”라는 기록이 있다.

이후 신유한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는 東京大本 『지헌음고』와 동일한 내용이다. 서문의 다음 장에는 ‘芝軒烏山碩夫先生吟稿’라는 표기가

46) 申維翰, 『謹呈三木氏梧下』, “卑不佞以歸三韓, 好事者當家誦而戶談, 永爲美事.”

있으며, 그 아래에 황의돈 선생의 인장이 찍혀있다. 총 224수의 지현의 시가 5언 율시, 5언 절구, 7언 율시, 7언 절구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원래 『지현음고』는 7언에서 5언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시에는 청색과 붉은 색으로 된 비점, 貫珠등이 많이 달려져 있다.



동국대학교 도서관본 『日本鳥山氏詩稿』

마지막 부분의 여백에 「十首」라는 제목으로 7언 절구 10수가 있고, 하단에 “此十首絕句 乃是王弇州艷異篇中 賈雲華所集唐人詩句也 賈與魏鵬有意, 母氏不聽, 鬱悒而死, 死時集此以寄於魏”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중간에 “丙午暮春謔于三山閣書室”⁴⁷⁾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 다음 장에는 또 「十首」라는 제목하에 7언 절구 10수가 실려 있으며, 하단에 “此閨情十首, 賈雲華作贈魏生者也. 雖是香奩妍聲, 才調則可愛, 故錄也”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47) 삼산각은 미상이다. 다만 김창협이 만년에 강학하며 머물렀던 공간으로 삼주의 삼산閣이 있다. 신유한이 일본에 갔을 때에는 이미 김창협은 사망하였다. 하지만 신유한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김창협이 배송한 시가 있어, 신유한을 통해 이들 집안이 일본 서적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국대본 『지헌음고』는 신유한의 서문이 수사적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일본’에 대한 편견을 넘어, 그들의 학문과 문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조선 문인들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이는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일본 문학 수준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시기에 『백석시초』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기도 하다. 당시 趙泰億, 李瓊 등이 그의 시집 『白石詩草』에 서발문을 써주었고, 귀국하면서 그의 시집을 가지고 왔다. 『백석시초』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은, 1719년 제술관으로 사행을 떠난 신유한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최창대는 신유한을 송별하는 자리에서, 『백석시초』를 주며 “말이 저속스럽고 연약한 것이 많으나 비교적 聲響은 있다”⁴⁸⁾며, 일본에 그보다 뛰어난 시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잘 대처하기를 기원하였다. 白石의 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시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관심이 통신사 사이에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국내 문인들 사이에까지 전해져 지속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유한 역시 일본 시집을 국내로 반입한 것은 이후 사행단에게 일종의 중요한 정보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

虞裳: “귀하의 고장에서 문장에 능한 이로 누구를 으뜸으로 칩니까?”

道哉: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蘿亭翁 이 노련하고 숙달되었다고 일컬어집니다.”

虞裳: “蘿亭의 문장은 雨森芳洲나 芝軒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道哉: “호슈의 글은 제가 일찍이 한 두 편 보았습시다만, 감춘 것이 있어 분명하게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芝軒의 저서는 제가 보

48) 『海游錄』 肅廟 44년 무술(1718) 정월.

지 못했습니다.”⁴⁹⁾

1763년 계미사행을 떠났던 이언진은 호슈와 芝軒을 기준으로 蘿亭이란 자의 문학적 경지를 물어보았지만, 정작 龜井南冥(가메이 난메이)는 芝軒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다고 답한다. 문집이 간행된 지 44년이 지났지만, 이때까지도 芝軒은 일본 문단에서 알려지지 못한 것이다. 이 대화를 보면 이언진이 사행을 떠나기 전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었던 『지헌음고』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해유록』에는 芝軒의 시가 실려 있지 않다).

물론 필사자 및 독자가 『지헌음고』를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공유했던 것을 넘어, 신유한처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전 시기 유입된 白石의 시에 이미 그 선례가 있기도 하다. 성대중은 新井白石의 시가 조선 문단에 영향을 주어, 이병연이 그의 唐調를 좋아해서 본뜨곤 했다고 기록하였다.⁵⁰⁾ 『지헌음고』의 필사자 역시 시를 선집하여 재배열하여 필사하고 방점을 찍는 등 적극적인 독서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芝軒 시의 어떠한 부분이 신유한을 비롯한 조선 문인들을 매료시켰는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고찰해야 하겠지만, 이 선집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생이나 술자리를 소재로 하여 탐미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규방 여성을 화자로 삼아 애정과 원망 등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시가 유독 많다는 것이다.⁵¹⁾

49) 『泱泱餘響』. “虞裳曰: ‘貴州能文章者, 何人爲魁?’ 道哉曰: ‘不爲不多, 而蘿亭翁, 稱老鍊熟達矣.’ 虞裳曰: ‘蘿亭文章與芳洲芝軒如何?’ 道哉曰: ‘芳洲文余嘗見一二編, 有諱不明辨工拙. 芝軒之著, 余未見之.’; 정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재인용.

50) 成大中, 『青城雜記』, 醒言. “其集之至於我, 李槎川秉淵, 亦愛其唐調, 而嘗效之.”

51) 아래의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본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 뒤 여백에 실린 『艷異篇』 소재의 시이다. 『염이편』은 일종의 전기소설집으로 李宜顯이 1720년 중국에 가서 입수한 서목 중 하나이다. 黃尙老 인장이 찍힌 『염이편』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신위가 『염이편』에 대한 관심은 두 차례 토로한 바 있지만⁵²⁾, 그 외에는 뚜렷한 유통의 흔적이나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국대본의 필사자는 그저 芝軒의 시를 베끼고 난 이후, 여백을 활용하여 『염이편』 소재의 시를 필사한 것이겠지만, 평소 신유한이 왕세정을 옹호하였던 것을 상기시켜본다면 신유한-왕세정-芝軒 간의 연결 고리가 포착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겠다. 더구나 염이편 심수를 평가하며 “香奩妍聲 才調則可愛”라고 언급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芝軒의 한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면이 있기에, 필사자의 취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국대 지헌음고는 일본 문학과 고문사에 대한 공감을

『醉妓』, “酒豪自喚女青蓮, 日日陪歡公子筵, 春醉有時禁不得, 琵琶當枕臥花前.”
 『賣花聲』, “滿擔紫紅春幾分, 蝶蜂相逐欲紛紛, 數聲喚上三竿日, 猶有佳人和夢聞.”
 『嘲不律僧』, “跡類風狂鶯衆聽, 將來當酒兩函經, 蒲團上事幾時了, 醉著紅裙喚不醒.”
 『睡起』, “一簾疎雨黑牀餘, 榴火欲然焦葉舒, 忽起不堪情思懶, 低聲喚婢埋殘書.”
 『秋閨怨』, “別來頗恐減容華, 紫菊叢寒復吐花, 砧杵敲殘五更月, 狂夫此夜醉誰家.”
 『秋閨怨』, “渭水秋寒鴈度城, 錦詩將寄未全成, 隔籬坐見逐風葉, 宛似狂夫無定情.”
 『해유록』 9월 9일 기사에서 신유한은 芝軒의 문집을 접하고, “이 시집은 매우 기발하니, 가지고 가서 다 읽은 뒤에 서문을 지어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시 『浪華女兒曲』과 『男娼詞』를 배치하였다. 芝軒의 시와 이들 작품은 정조가 겹쳐지는 지점이 있는바, 전자가 후자에 있어 발상의 단서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52) 『夜過醒仙捻管』, “出門奈此月明天, 小市稀燈散步邊, 歷數可人閑捻管, 能來犯夜舊承宣, 病猶不毀糖霜譜, 老未忘情豔異編.”
 『醒叟樞密彌留有日 人皆憂之 公亦不能無自危心 余獨以爲未喪斯文 必無是事 口占長句 聊據鄙誠 兼爲寬懷』, “我聞室成貯翠蛾, 絳桃千葉罨窓紗, 風流豔異編中見, 食品糖霜譜裏多.”

신유한뿐 아니라 국내 독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5. 결론

그간 신유한의 사행 체험과 일본 문사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개 『해유록』에 나타나는 일본 문사에 대한 폄하의 시각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바, 필담창화집과 서문, 신유한의 문집 등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경우 의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과 8년 전에 이루어졌던 신묘사행과 비교해 보아도 교류에 대한 의지와 일본 문단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유한의 『해유록』이 사행록 전통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사와의 교류사에 있어서도 신유한의 존재는 이채를 발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신유한이 일본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일면만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한은 문학적 역량이 빼어난 문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자 하였다. 일본 문사에게 준 서문에서 문학과 삶의 지향에 대한 공감대를 강하게 드러내거나, 시구를 직접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논평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신유한에 이르러 일본 문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古文辭라는 문학 사조를 공유한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적·지리적 기준으로 華夷를 구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학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차원의 선입견과 편견이 문

화적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신유한에게서 그러한 전면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조선후기 元重擧를 거쳐 朴齊家·李德懋·丁若鏞 등 실학자에게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이 『해유록』을 열독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유한과 일본 문사의 교류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가 그 단초를 제시하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海游錄』, 한국문집총간200, 민족문화추진회, 1996.
- 『謙齋集』, 한국문집총간190, 민족문화추진회, 1996.
- 『青城雜記』(한국고전종합DB)
- 『承政院日記』
- 『客館璀璨集』(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 『梅所詩稿』(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 『白石詩草』(早稲大圖書館 柳田文庫)
- 『附韓人文』(芳洲文庫)
- 『泱泱餘響』(京都大圖書館)
- 『玉壺詩藁』(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 『精氣神論』(京都大圖書館)
- 『芝軒吟稿』(東京大圖書館)
- 박희병 외, 『通信使의 筆談』(1) (서울대출판부 간행예정)
-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1~465쪽.
- 구지현, 『1763년 필담창화를 통해 본 조선과 일본의 시문창화 인식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68~91쪽.
- 구지현, 『18세기 필담창화집의 양상과 교류 담당층의 변화』, 『조선통신사연구』 9, 2009, 1~39쪽.
- 노경희, 『조선후기 한문학과 일본 고문사파(古文辭派) 문학 연구의 접점과 방향』, 『한문학 논집』 47, 근역한문학회, 2017, 103~128쪽.
- 이효원, 『1719년 필담창화집 『航海唱酬』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관 -水足屏山과 荻生徂徠의 대비적 시선에 착안하여-』, 『고전문학연구』 41, 2012, 377~409쪽.
- 이효원, 『『해유록』의 글쓰기 특징과 일본 인식』, 서울대 박사논문, 2015, 1~209쪽.
- 이효원, 『18세기 徂徠學의 흥기와 通信使-辛卯·己亥使行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21, 2016, 1~25쪽.
- 정 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7~43쪽.

하지영, 『고문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 - 申維翰과 荻生徂徠를 중심으로』, 『한국
한문학연구』 61, 2016, 193~224쪽.

藍弘岳, 『徂徠學派文士と朝鮮通信使-‘古文辭學’の展開をめぐる』, 『日本漢
文學研究』 第9號, 二松學舍大學 東アジア學術總合研究所, 2014, 53~
80쪽.

ABSTRACT

1719's Toshinsaheung(通信使行)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Japanese literary circles

—Preface given to the Japanese writers by Shin-Yuhan(申維翰)

Lee, Hyo-won · Ha, Ji-young

In this paper, based on the preface given to the Japanese writers by Shin Yuhan(申維翰),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perception of Japanese literary circles. At this time, in the Japanese literary circles,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atmosphere of seeking recognition of their literary level through the preface of the Tongshinsa(通信使). In this mood, Shin Yuhan also gave a lot of preface to the Japanese writers. Shin Yuhan gave preface to Toriyama Shiken(鳥山芝軒, 1655-1715), Irie Jakusui(入江若水, 1671-1729), Kinoshita Lanko(木下蘭臯, 1681-1752) Karakane Baisho(唐金梅所, 1675-1738). They have high poetry names in the present day, and are also distinguished characters in Japanese history of literature. Shin Yuhan formed a strong consensus on taste of Konunsa(古文辭) and poet of Tang(唐). Furthermore, he strong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introduce Japanese literary works to Joseon(朝鮮). We can actually see the case in Dongguk University(東國大) 『日本鳥山氏詩稿』. Shin Yuhan did not distinguish 華夷 as a national or geographical standard, but formed mutual consensus on literary homogeneity.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prejudice can be resolved at the cultural levelbased. We can see here that the change of awareness toward Japan seen in Won-jungeo(元重舉), Park Jae-ga(朴齊家), Lee Duk-moo(李德懋), and Jung Yak-yong(丁若鏞) who are Shilhakja(實學者) of late Choseon period, is not done suddenly.

Key Words Shin-Yuhan(申維翰), Toriyama-Shiken(鳥山芝軒), Irie-Jakusui(入江若水), Kinoshita-Ranko(木下蘭臯), Karakane-Baisho(唐金梅所), 日本鳥山氏詩稿,

Komunsa(古文辭), Preface(序文), Tonshinsa(통신사), Kihaesahaeng(기해사행)

논문투고일 : 2017.07.15

심사완료일 : 2017.08.08

게재확정일 : 2017.08.19